

독자와 좋은 책의 만남

: 도서정보의 현황과 과제

들어가며

독자들이 좋은 책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책에 대한 도서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펴내는 큰 출판사들이나 책을 판매하는 대형 서점들에서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기보다는 일부 주요 출판사가 발간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매체에서 제공하는 도서정보도 대부분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저 신간도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간단히 정의하면 좋은 책이란 첫째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주는 책을 말한다. 다음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러면 나쁜 책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좋은 책에 반대되는 개념의 책, 즉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도록 만든 책



김 봉 진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ranto@hanmail.net

이거나, 책의 내용 속에 어려운 낱말이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도록 만든 책이 나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책인 경우에는 비속어나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책들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도서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도서출판의 현황과 정보제공의 실상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도서출판의 현황을 보면 발행도서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류별 발행부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자료(납본도서를 기준으로 한 2006년도 출판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신간도서는 4만 5521종이 발행되어 2005년도보다 4.4%가 늘어났다. 이를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매달 3800여 종류가 발간되었고, 날짜로 나누어보면 매일 125종류나 되는 새 책이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또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1억 1313만 9627부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해 볼 때 5.5% 줄어든 수치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책의 발행종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종별 발행부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함께 책의 외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쇄종이는 갈수록 다양화·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급 양장본 형태의 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독자들이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 매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제공은 공공적인 성격과 상업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투자로 여긴다면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도서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판매자료 제공으로 본다면 상업성을 중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제공은 이 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간서적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신문 지면에서 이들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는 간략한 소개 정도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제공지면이 매우 적어 몇 권의 책 소개에 그치고 있다.

도서정보 제공기관으로는 크게 언론매체와 도서 판매업체, 그리고 출판사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몇 개의 서평지와 일부 도서관도 일정부분 그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정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먼저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언론매체로는 일간신문을 들 수 있다. 대부분 매일 50~60면을 발행하는 일간 신문들에서 신간이 소개되는 경우는 일주일에 단 한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그 많은 지면 중 2면에서 4면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즉, 신간서적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신문 지면에서 이들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는 간략한 소개 정도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제공지면이 매우 적어 몇 권의 책 소개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신문들이 갈수록 상업화 되어가면서 책 소개조차 신문광고와 연결된 홍보성 짙은 정보 제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특정 신문의 경우에는 종교나 사상에 따라 일방적이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간신문 이외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책 소개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특정시간대에 간단히 책의 표지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여러 책 판매업체들(온라인업체 포함)에서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대체로 신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잘 팔리는 책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책 판매업체들은 수익성을 중시하여 잘 팔리는 책을 중심으로 정보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판매업체에서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대체로 비슷한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을 많이 펴내는 출판사 중심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출판사에서 낸 책들만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잘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책 판매업체들의 책 정보제공은 좋은 책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책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현재 책을 많이 발간하는 큰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펴낸 책에 대한 책 목록집을 해마다 발간하여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책의 전체 목록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출판사가 만여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20여개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도서목록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이들 목록집은 말 그대로 단순한 목록집의 기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책 목록집조차 대부분 회원제로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구실로서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평지는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에 대해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책을 구입하는 학부모들이 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린이책의 시장규모가 커져가면서 새로 발간되는 어린이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행본이나 전문 학술분야의 책들을 평가하는 서평지는 한두 군데서 나오고 있지만,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도서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대부분 장서수도 매우 적고 도서정보 제공도구도 빈약하여 기본적으로 일부 도서만을 안내해주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는 도서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생겨난 문제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도서관 정책 때문이다. 도서관은 시설 못지 않게 운영방향과 운영정책이 중요하다. 또 인건비 이상의 책 구입비와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도서 정책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요즘에 들어와서 도서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주요 도서관끼리 서로 협정을 맺어 도서정보 제공의 기반 시설망을 갖추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자와 좋은 책의 만남을 위한 방안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좋은 책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새로 출간되는 모든 도서들을 안내해주는 도서정보 제공기관이 있어야 한다. 한 해동안 새로운 책이 4만 5천 종류가 넘게 발간되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어떤 책이 출간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예산 지원책이 요구되며, 현재 출판사에서 신간서적의 납본을 받고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공공적인 성격을 띤 도서정보 제공기관에서는 신간 도서 및 구간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해야 하지만 좋은 책을 가려내는 서평활동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서정보 제공기관에서는 국내 신간도서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모든 도서관에 공급하고 누리집에 그 내용을 실어서 모든 독자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책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서평지도 발간해야 한다. 특히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정보제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출판사별로 신간서적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의무화 ②도서정보 제공 양식의 정형화(최소정보 제공 범주와 최대정보 제공 범주 설정) ③독자 참여 공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국공립 및 전문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책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출판사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책보다 좋은 책을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추천도서들에 대한 공공도서관들의 의무 구입 정책이다. 좋은 책들에 대해 공공도서관에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다면 출판사에서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각 분야별로 전문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서들보다는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안목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도서관별로 전문도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 도서

관끼리 서로 연계망을 갖추어 도서정보를 교류한다면 전문도서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도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이 분야별, 시기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서들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그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앞으로는 사서들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여 도서안내와 도서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시켜야 한다. 도서관을 그저 책을 읽거나 책을 빌리는 공간으로서만 여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재정립시켜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음악회 개최나 작가와의 대화, 지나간 명화 상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맺는 말

독자와 좋은 책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책을 만드는 출판사, 이들을 독자들과 연결해주는 여러 연결매체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즉, 정부·출판사·책 판매업체·언론매체·도서관·독자들이 서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구를 직접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기구의 설립이 쉽지 않다면 현재 출판사들의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도서 납본정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간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하면 책값의 50%만을 지불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에 지불하지 않은 책값 50%를 도서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면 독자들과 출판사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책을 펴내는 출판사는 지식과 정보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여 정성과 땀이 담긴 좋은 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펴낸 새 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공정한 판매 경쟁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책 판매업체는 책에 대한 안내가 판매 정보가 아닌 구매 정보가 되도록 해야 하고, 가격을 위주로 한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 책의 외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 부실에 따른 도서반품 제도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전문 서평기사를 채용하여 책 소개나 서평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책 소개나 평가를 하는 지면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도서구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책 소개 및 안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책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수시로 진행하여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책방 나들이를 통한 꼼꼼한 도서 선택과, 필요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 도서관을 문화사랑방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00여 개의 남는 동사무소 자리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를 앞세우면서도 대부분 우리의 정신 건강보다도 몸 건강을 위한 시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그곳을 운동을 하는 곳이나 공부방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